

# 부실업체에 칼 댄다

### 전북도, 건설업체 등록기준 실질심사 강화 미달 의심 1000여 업체, 연말까지 실태조사

전라북도는 건설한 건설업체들의 수 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2017년 9월말 현재 총 3,984업체(종합 676, 전문 3,308)가 있으며 이는 전국의 5%규모이다

전북도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미달이 의심되는 1,062업체(종합 248, 전문 814)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종합건설업 248업체는 10월중 해당업체로부터 등록기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12월까지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내년 1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 814업체는 등록기관인 각 시군별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내년 1월까지 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등록증 불법대여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 대여는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와 키스콘(건설업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연계 공유하여 건설업면허 증빙여부 등을 감시하고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면허대여 업체를 적극 가려낼 계획이다.

한편,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중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287개사로 영업정지 104업체, 등록말소로 퇴출된 경우 63개사이다.

도 관계자는 “우수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부적격업체를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고질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구성 연말까지 대대적 징수활동 명단공개 등 강력전개 예고

전북도는 고질체납자 등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0월16일 ~ 12월31일 동안 2017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체납자별 체납유형을 분석하여 고액 고질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체납세 794억원중 27%를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 214억원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11.8

일)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외의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도 자치행정국장(김양원)은 “도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전라북도의 자주재원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등에 체납세를 납부하여 행정적, 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전용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스마트 위택스 및 금융앱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개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14회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이 12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컨벤션센터에서 송하진 도지사, 강신재 테크노파크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산업공예부 차관, 조병서·최훈열 도의원, 이연상부안부군수, 오세웅 부안군의회 의장, 국내외 석학, 기업대표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86억원 투입

### 도,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질 높은 보건환경 제공 최선

전북도는 201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국비 57억원을 포함 총 86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여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2018년도에 86억원의 예산을 확보, 익산시 동부권 건강생활

지원센터 신설 등 17개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 및 81개소 보건기관에 의료장비 및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지역보건의료관리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삼봉 공공주택지구로 이전신축 예정이었던 완주군보건소는 37억원의 국비가 최종 확보됨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익산시도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및 옹포보건지소 신축 등 사업비가 확보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의료환경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시작하여 올해까지 약 1,852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보건기관 409개소 중 399개소에 대해 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차량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보건기관 뿐만 아니라 군산의료원 및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도 2018년에 130억원을투입하여 노후시설 및

수술실 등 기능보강을 지원함으로써 남원, 임실, 순창 등 동남부권 및 군산 등 서부권 도민의 건강증진 및보건의료서비스 질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등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현황에 맞는 취약성 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 보강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 “독버섯같은 학생도박, 학교가 막아야”

### 허남주 도의원, 도교육청 예방교육 관한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사진)이 제347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허남주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된 시대에 청소년들 사이에 독버섯과 같은 도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교육이 학교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받도록 했다.

한편 청소년이 도박문제에 상담 받은 건수를 보면 2014년 이후 3년동안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사설 토토와 프로토, 소셜그래프, 즐타기 등 손쉽게 배팅할 수 있는 게임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다. /김진성 기자

# 전주시민체육대회 14일 개최

### 33개 동·4000여명 참여 배구·줄다리기 등 한마당

66만 전주시민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2017 전주시민체육대회'가 오는 14일 전주시 33개 동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등 시민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는 전주 시민체육대회는 33개 동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등 시민 모두가 화합과 상호 소통을 통해 하나가 돼 건강한 행복도시 전주

로 발전해 나가는 기쁨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체육대회는 오전 9시 개최식을 시작으로, 배구와 단체줄다리기, 단체줄넘기, 씨름, 제기차기 등 동대항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017 시민체육대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그 어느 대회보다 알차고 풍성하게 준비했다”라며 “전주시민 한마음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